학생운동, 그 변화와 변혁의 전망

독자투고—학생운동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기획시리즈에 관하여

학생운동, 전망은 있는가를 읽고

자주성 지향으로 생활에 다가선 운동

성과 무시한 채 오류만 부각시켜

90년대 학생운동의 나아가야 할 길

개별화된 대중에 기반한 변화 이루어야

변혁 이끌 겸허한 반성·냉철한 평가 필요

학생운동 전망은 있는가

본문은 지난 1005호 부터 6회에 걸쳐 학생운동의 위상재정립을 위한 기획 시리즈 '학생운동, 전망은 있는가'를 기획·연재하였다. 이번 기획시리즈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여러 방식으로 제출되었고, 논의된 문제제기에 관한 문제의식을 담은 글들이 투고되었다. 이에 두가지 의견을 실음으로 독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발전적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요즘 가 대학 학생회 치고 사람이 넘아도는 학생회는 매우 드물며 학생회, 동아리 모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곳이 흔하지 않다. 예전에는 집회장, 강의실, 중앙대자보판 앞, 도서관 등 학내 곳곳에 학생들의 군집이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도서관에만 학생들이 넘쳐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 구조적 문제인 경기불황에 따른 취업난 때문만은 아님을 개개 학생들을 만나보면 알 수 있다.

아직도 일반 학생들은 정치적인 사안이나 사회 변혁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식들이 학생회를 통해서 표출되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학생회 기능의 유명무실로 인해 응집되어 나타나지 못하고 개개 학생들의 진보적인 의식들이 신념화되어 무관심, 냉소주의, 반학생회 등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이런 점에서 작금의 학생운동의 '위기'가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학생회 '존재'자체의 문제인가, 아니면 학생들의 의식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학생회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의 문제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야 말로 90년대 학생운동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 분석을 토대로 미래의 대안을 마련할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변화되어 가는 학생운동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본교에서도 나타나듯이, 폐품·재활용품 수집, 쓰레기 분리수거, 공명선거 운동, 환경보전 캠페인 등 경쟁력 같은 중류시민계층의 대중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집회장을 보았을 때 문화공연은 대중을 모으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교문이나 거리 투쟁에서 과격한 폭력투쟁의 현주소이다.

우리는 이러 현상들을 통해서 학생운동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무엇보다도 90년대 한국 사회 자본주의 토대의 변화에 따른 학생대중의 의식 변화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현시기 국가독점의 지배력 확장은 교육기구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쳐 대학은 독점자본에 순응하는 기능인을 양성하는 곳으로 타락하고 있으며 이 속에서 대학생은 자본주의적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있다. 반면에 전사회적인 이념적 문화현상은 인텔리인 학생층으로부터 일반 대중적인 수준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고거 파 소체제에 대한 자발적인 학생대중의 진보적 지향은 단일한 목표의 상실로 인해 분화되어가며 이제 더이상 '민주주의'만으로는 대중을 획일화 시킬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런 새로운 시대의 도래후 학생대중 스스로가 기존 학생운동의 내용과 수준을 거부하고 있다. 이제 학생회는 다수 대중의 외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소수 운동권이 독식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학생 대중의 의식수준 또한 변화되어,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공허한 구호를 통한 변혁성만을 주장하는 학생운동권에 비판을 하고 있다. 바로 현재 나타나는 대중들의 학생회 이탈과 학생운동의 변화는 바로 학생대중이 '학생운동 이대로는 안된다'라고 진단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와 치유책을 무시한 채 우파학생운동 진영처럼 학생회 중흥나 전대협의 전총련으로의 확대 건설로 무마하려 한다거나, 좌파 학생운동 진영처럼 정파조직의 건설로 대응한다면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닥칠 것이다.

따라서 학생운동 역시 스스로의 근본적인 개혁과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세우는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생운동의 개조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우선 학생운동은 지적인 감성이나 정의감에 호소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실증을 가지고 학생대중들로부터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활동이 필요하다. 이것을 바탕으로 진보적 이념에 입각한 정치활동을 하는 공개적 정치조직과 학생대중의 대표체인 학생회를 양대 축으로 해서 진보적 이념을 정치적 색조로 하면서 대중의 근본적인 요구에 답할 수 있는 장기적인 조직의 건설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끝뿌, 학생회가 다양한 이념을 가지는 대중 모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조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학생대중을 정치적 공동체로 쉽게 묶어낼 수 있는 곳이 학생회라는 시각을 벗어나서 학생회는 무엇보다도 학생대중의 공동 이해를 대변하고 민주적 원리를 지키면서 진보적 대중을 학생회로 끌어들이는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

세뿌, 학생운동의 혁명성, 진보성이 폐품·재활용품 수집, 공명선거 운동 등의 합법적인 활동 방식으로 유지될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학생운동을 앞서서 선도해 나갈 준준위적 인자들을 인정정으로 훈련시키고 지도할 학생조직의 중요성을 간과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운동은 지금의 어려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 아무리 시대가 낮은 수위의 활동방식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속에서 매몰되어 버린다면 그야말로 '대중주수주의'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열적인 선전 활동을 통해서 학생대중의 의식속에서 진보적인 사상적 흐름을 이끌어 내야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폭로와 정책적 대안으로 현실성 있는 이념적 전망을 학생 대중들 마음속 깊이 전해야 한다.

금전관계와 이해타산만이 남는 자본주의적 인간 관계를 실제 생활속에서 극복하고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학생운동은 변해야 하며, 학생회 또한 급수이념가들만의 자족적인 장이 아니라 진보적인 삶을 지향하는 모든 대중들로부터 공개되는 조직이어야 한다. 변화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로 부터 시작된다. 현실을 겸허하게, 그러면서도 냉철하게 평가해 보자. 기존의 운동에 대한 반성없이 어떻게 학생운동이 제대로 된 방향전환을 이룰 수 있으며 고도로 발달한 남한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수 있겠는가?

이 영 채
〈정외·2〉

섭으로 뒤죽박죽이고 건전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변혁이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관심사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바로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곳이 어떻게 바뀌는가'하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면만으로도 대학주보가 기획시리즈로 연재한 '학생운동, 전망은 있는가?'는 변혁운동에 깊은 시견은 없지만,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본 시리즈는 찬성할 수 없는 내용과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빠진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부족하나마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가끔씩 자신이 했던 일이나, 자신의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 보면서 곪은 상처를 치료하는 한 명의 의사가 된다. 현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상처부위를 치료하는 것이다. 물론 오류와 잘못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학생운동의 일면만을 부각하여 전체를 문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는다는 느낌은 무엇일까?

기획시리즈에서는 학생운동의 변화를 되짚어 보고,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을 대체적인 내용으로 하고있다. 학생운동은 오랜 역사 만큼이나 많은 새로운 발전들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올바르게 우리의 성과로 평가하고 발전시켜야 할, 발전적이고 성과적인 부분이 모두 생략된 채 문제점만을 부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시각을 제공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쩌면 현실을 올바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알맞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식인 우리의 목표이고, 곪은 부위를 찾아내고 치료하자고 하는 평가가 상처 부위를 이리저리 들추셔 놓아서 치료는 커녕, 고통(패배감과 좌절감)만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내가 기획시리즈에 대해 첫번째로 불만스러운 점이다. 그럼 우리의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먼저, 현실과 대중의 요지에 맞는 사상이 마련되고 있는 점이다.

책이나 지식 속에서 죽은 사상으로 운동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과거에는 아는 것이 많고 소위 '말발 좋은' 사람이 운동을 잘 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성실하고 결의하게 맡은 일을 묵묵히 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을 모범이라고 한다. 사상은 '혁명의 이론'의 수준을 뛰어넘어 그 사람의 인생관,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한 사상이 현실의 요구에 따라, 오랜 모색기의 시행착오를 거쳐 풍부한 실천 속에서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 사람을 중심에 놓은 사상으로 체출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올바른 대중노선의 확립이다. 실천 속에서 여전히 관념적 과격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구시대의 운동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이지 그 근본부터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항상 대중을 중심에 놓으며, 대중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얻는 올바른 대중노선은 학생운동 속에서 '자주적 학생회' 노선으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그것대로라면 이제 과거와 같이 일반 학우들이 단지 동원의 대상으로 취급받지 않아야 하며, 학우들 하나하나의 자주적 지향은 모든 일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높이는 방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셋째, 운동대오의 외적 팽창과 함께 과거와 달리 일상사업의 범위가 확대된 점이다. 지금은 학생이라는 존재조건으로부터 학우들이 요구하는 학내 민주화나 학내 복지개선, 건강한 대학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생활문화운동, 환경운동 등이 새롭게 '운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만큼 폭이 넓어지고 생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것이다.

넷째, 최근에 혹산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중심에 놓으며, 삶의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토이다. 이제는 화려한 형식보다는 알찬 내용이 강조된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우리의 성과이며, 재산으로 간직해서 이후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다.

기획시리즈에서 두번째로 가지는 불만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필자들의 시각이다. 기획시리즈에서는 하나같이 문제의 원인을 소위 '변화된 현실'에서 찾고 있다. 변화된 국제정세, 변화된 의식, 변화된… 무언가 변하긴 많이 변하였나보다. 그 중에서도 역적죄(?)를 뒤집어 쓴 것은 다름 아닌 변화된 대중들이다. 대중들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된다'고 생각할 만큼 개량화되었다 주장하던다. (기획시리즈 2) 정말 그럴까?

길 가는 학우들을 붙잡고 물어보자. 우리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느냐고… 지금의 우리 사회와 같은 사회에 살면서 자신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적다. 모두가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들은 개량화 된 것이 아니라 요구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원의 대상으로 물건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이 주인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변혁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실천적인 모범이다.

세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필자들의 선정에 관해서이다. 모두 6회에 걸쳐 실린 글의 필자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그리 폭이 넓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물론 2, 3, 4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취재한 것이 함께 실렸지만 그 내용이 시리즈 자체에서 논점으로 하는 것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보다 객관적이고 문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필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실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시안마다 여러가지 주장들을 함께 다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

네번째 불만은 이번 시리즈의 제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학생운동의 대안을 제시하는, 사심들의 결론 예람을 '운동'의 위기인가? '운동권'의 위기인가? 라는 말이 공공연히 사회과학 잡지에 실리고 있다. 특히 학생운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수준 또한 그 방법론적인 면에 대해서 비판과 변화를 제기하는 투고들이 신문지상에 나타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땅의 민주화와 변혁을 학생운동이 가장 많이 기여했다는 여론조사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가 되어 버렸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낡은 방식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질타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주는 가시적인 학생들의 학생회로부터의 이탈이다.

HYUNDAI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1%의 마지막 정성"

現代가 추구하는 기업문화 정신입니다

99%가 100%를 대신할 순 없습니다.

1%의 마지막 정성만이
오직 완벽한 기술과 제품을 탄생시킵니다.
이는 밖에서 벌어 안을 살찌우는
現代의 수출기업 정신이기도 합니다.

現代